

43개 읍면동 중 절반 이상 '소멸 위험'

올 3월 소멸위험지수 0.59... 1년전 0.65보다 떨어져 25개 읍면동이 지수 0.5 미만으로 소멸 위험 단계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로 인구 순유출까지 확대되면서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멸 위험이 보통인 지역은 단 5개 동 뿐이다.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발표한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 위험'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는 0.590으로, 1년 전(0.645)보다 낮아져 소멸 위험이 더 높아졌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은 커진다. 지수가 > 1.5 이상은 '소멸 위험 매우 낮음'

> 1.0~1.5 미만은 '보통' > 0.5~1.0 미만은 '주의' > 0.2~0.5 미만은 '소멸 위험 진입',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3월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615이다. 지수가 1.5 이상 시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세종이 1.113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0.810), 경기(0.781), 대전(0.736), 인천(0.735), 광주(0.732), 울산(0.636), 제주 순이다.

제주는 소멸위험지수가 2000년만 해도 2.22로 소멸 위험이 매우 낮았다. 하지만 2007년(1.39) 처음 1.5 아래로 떨어졌고, 2013년에는 0.95로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후 > 2020년 0.78 > 2021년 0.74 > 2022년 0.69 > 2023년 0.65에서 올

해 0.59로 하락 속도도 갈수록 빨라져 1~2년 내에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해 3월 제주 총인구 67만3103명 중 20~39세 여성 인구는 7만2202명, 65세 이상 인구는 12만2434명이다. 1년 전(총인구 67만7031명, 20~39세 여성 7만4881명, 65세 이상 11만7025명)과 비교하면 총인구와 20~39세 여성이 각각 0.6%(3928명), 3.6%(2679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은 4.6%(5409명) 증가하면서 소멸위험지수를 더 떨어뜨렸다.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에서 소멸위험지수가 1을 넘는 곳은 아라동(1.373), 노형동(1.183), 연동(1.111), 외도동(1.070), 오라동(1.038) 등 5개 동 뿐이다.

추자면(0.121)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 일도1동(0.237), 한경면(0.249), 구좌읍(0.270), 우도면(0.292), 한림읍(0.324), 용담1동(0.354), 건입동(0.382), 용담2동(0.407), 조천읍(0.457), 삼도2동(0.466), 삼도1동(0.474), 애월읍(0.478) 등 제주시 원도심 등 12개 읍면동이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중에서 소멸위험지수가 1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0.5~1.0 미만인 주의 지역은 대천동(0.651), 서흥동(0.648), 중문동(0.631), 동흥동(0.608), 대륜동(0.583) 등 5개 동이다. 나머지 12개 읍면동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다.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중앙동(0.223), 남원읍(0.258), 성산읍(0.261), 송산동(0.284), 영천동(0.292), 표선면(0.298) 순으로 0.3 미만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신품종 나물콩 '해찬' 농가 호응 얻을까

성숙기가 빠르고 기계 수확이 가능한 나물콩 신품종 '해찬'의 농가 실증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나물콩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과 한림읍, 서귀포시 안덕면 등 3곳에서 농가 실증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찬은 국립식량과학원과 제주도농업기술원이 2020~2023년 나물콩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선발한 신 품종이다. 현재 제주에서 주로 재배되는 '풍산나물콩', '아람콩'의 장점은 갖추고 단점은 보완한 품종으로 평가된다. 풍산나물콩처럼 성숙기가 빨라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아람콩보다 꼬투리가 더 높게 달려 기계 수확에 유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농업기술원은 이런 품종 특성이 실제로도 잘 발휘되는지 농가 실증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단호박 수확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단호박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신청하세요"

가격하락시 차액 90% 보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농·감협을 통해 오는 9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

(11월~이듬해 2월) 동안 전국 9개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도매시장은 서울(가락, 강서), 부산(업궁), 대구(북부), 인천(남촌), 광주(각화), 대전(오정), 경기(구리, 수

원) 등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도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오는 10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의 소살 **7월 1일부터 힐링하이세요**

2024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5차 참가자 모집

한라일보사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격주로 주말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 '2024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를 실시합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으로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일리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일상의 지든 삶을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집결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08시 대형버스로 이동
📅 신청기간: 7월 1일(월)~10일(수)
📍 참가접수: 한라일보 인터넷 <http://ecotour.ihalla.com>

📍 대상: 국내외 관광객 및 제주도민(20세 이상 성인)
📍 모집: 40명 (한라일보 인터넷 선착순)
📍 코스: 18립만 인구~인도~ 돌오름길~돌오름돌레길~인도~한대오름~새달천변~삼나무숲길~서귀포쓰레기소각장 (14.5km)

📍 참가비: 1만5천원 (여행자보험·중식비 등 포함)
📍 입금계좌: 농협 301-0104-3643-81 (예금주: 한라일보사)
📍 문의: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사무국 ☎064)750-2291, 2151

의귀·토산2리 영농 폐기물 집하장 설치

서귀포시 74곳으로 늘어

서귀포시는 농촌 지역에 영농 폐기물 마을 공동 집하장 2개소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6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을 수거해 처리할 수 있는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신규 설치한 마을은 남원읍 의귀리와 표선면 토산2리다. 이로써 서귀포시 관내 공동 집하장은 총

74개소로 늘었다.

이와 함께 남원읍 한남리의 공동 집하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철거 후 재설치했다. 대정읍 신평리와 하모리, 남원읍 남원2리의 시설은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같은 마을 공동 집하장은 농업인들의 영농 폐기물 배출 편의를 돕는 시설이다. 특히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로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무단 투기 방지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도 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키위 고품질시설 현대화

제주시는 2024년도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원 시설은 ▷자동개폐기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등 5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

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이며, 2025년 참여 예정 농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가거나, 2012년 3월 15일 이후 신규 조성된 키위 과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농협 등 6개 지역농협과 한라골드영농법인에서 하면 된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도묘, 일반묘)
원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례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도묘,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천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도묘,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감귤 무병묘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도묘,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행사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총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로 991번길1(수산리735)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 =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